한국산 *Oodes*속 먼지벌레(딱정벌레목 : 먼지벌레과)

박종균, 조영복*, 권용정**
(상주대학교 잠사곤충자원학과, *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, **경북대학교 농생물학과)

*Oodes*속 먼지벌레는 Licininae아과 Oodini족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으나, 주로 일본, 중국, 한국, 스리랑카, 인도 그리고 동남아시아 등에 분포하고 있다. 일본에서는 10여종 미만으로 적은 종 수가 보고된 바 있으며(Ueno, 1985),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신 등(1994)에 의해 *Oodes integer* Semenov 1종이 알려져 있을 정도로 드물게 조사되는 종이다.

*Oodes*속의 특징은 몸 전체가 검은색으로 광택이 전혀 없거나 둔탁한 광택을 띠고 있으며, 호리병먼지벌레로 명명될 정도로 전흉이 앞으로 삼각형에 가까울 정도로 완만하게 좁아져 있고, 시초의 선단 부분도 완만한 곡선으로 좁혀져 있다. 전체적 몸 표면이 아주 강한 인상을 느끼게 하며 매우 딱딱한 전흉배판 및 시초로 구성되어 있다.

일반적인 *Oodes*속의 분류방법은 전흉하면돌기 부분에 이중 강선의 유무, 상순 강모의 개수, 전흉배판 기부의 형태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식기에 의해 동정이 가능하다.

종 조사에서는 *Oodes*속을 정리하던 중, 1997년 제주도에서 채집된 3개체 (2♂, 1♀, Y. P. Cho)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는 *O. vicarius* Bates, 1873로 밝혀서 미기록종으로 보고하고자 하며,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는 2종이 알려지게 된다.